

슬리퍼 신고 훈련받는 비상근 예비군



문형철 기자
어수선하軍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훈련(년간 15일)이 사실상 2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일까. 며칠 전 참석한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에서 우려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해 온 제도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과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4년 70여명의 예비역 군 간부들이 복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0여명으로 성장했다. 6월부터는 연간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무 인원’과 ‘복무 일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를 하는 예비군들의 전력유지를 위한 질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두 곳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복무자의 자질

이 평균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것이다. 예 산확보와 성과도출을 위해, ‘계급과 병과에 맞는 보직(적소보직)인지’ 또는 ‘복무 간 다른 예비군의 모범이 되는 성실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실적 평가 없이 비상근 복무자를 늘려 왔다.

지원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해 온 듯한 당국의 태도는 ‘성실복무 예비군’들의 ‘이탈과 신뢰감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2년 사이 비상근복무 우수자로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비상근 복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에 밀려 재선발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선발되지 않은 자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적소보직이 아니니 재선발하지 않는다”는 짧은 해명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훈련에서 ▲‘크로스’라고 불리는 슬리퍼와 ‘조깅화’를 신고 부대 영내를 활보하는 예비역간부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고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예비역 위관장교 ▲전투복 하의와 전투화 끈도 묶지 않고 다니는 중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봤다. 다수는 새로 선발된 인원들이었다.

군인복제령에 따라 전투복에 예비군 표지를 부착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투복과 전투화 등이 없어 훈련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보고 정예예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훈련을 정성껏 준비해 온 현역장병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진다. 10~15만원 훈련보상비 이야기만 하는 전직 장교와 부사관을 보고 현역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도 도입초기보다 퇴행한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군당국은 방역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훈련에서 실시하는 코로나신속항원 검사를 하지도 않은 예비역 대위가 검사완료자 옆으로와 담뱃불부터 켜다. 예비역 중위 두명은 마스크를 벗고 딱붙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손에는 검사용 테스트기가 들려져 있다.

이런데도 현역 장병들은 서내 군간부 혹은 부대에 온 손님으로 생각해 최대한 친절할 자세를 유지하지만, 친절에도 선이 필요하다. 이들은 명령과 보상을 받는 소집된 준군인이다. 계급과 직책도 있다. 대위가 중위에게 님을 붙여 호칭하는 모습에서 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captinn@metroseoul.co.kr

‘협치’에 조건은 없다



기지수첩
최영훈
(정치경제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상황에서 떠오른 화두가 있다. 바로 ‘협치’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감염병과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 불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만 보면 여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 의지는 드러났다. 하지만 저마다 이유로 ‘협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치는 어려워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낸다. 조건이 맞지 않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

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여야 정치권은 ‘협치’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자주 다뤘다.

지금 상황도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조건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면서 내민 협치 조건이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마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처리 협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협치 조건으로 내밀었다. 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잘못된 국무위원 인사를 바로 잡으라”며 협치 조건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무위원 임명은 철회하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극복과 더 발전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치’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로 조건만 내세우며 다투고 있다. 31년 정치인생을 마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이임사에서 “대화 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여야 정치권이 지금 한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즉 조건 없는 협치를 하기 바라본다.

/choiyoungr@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4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7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48년생** 골치 아픈 일은 미루지 말고 상의. **60년생** 휴식이 없는 바쁜 하루에도 보람. **72년생**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려 지니 고난은 참고 견디라. **84년생** 분열은 단초는 내부에서 일기 시작.
- 37년생** 아랫사람 말을 잘 경청. **49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61년생** 공과 사를 잘 살펴보라. **7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 가라. **85년생** 중대한 일이 끝나면 논공행사가 관건이라 다툼이 인다.
- 38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이 시작. **50년생** 거품에 단비가 내리니 흡족하다. **6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희망을 찾자. **74년생** 사망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86년생** 인연을 만나게 되니 행복시작.
- 39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함께하는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63년생** 당장 급여가 적어도 보람을 가져서 미래를 발전시켜라. **75년생** 자식 이 나보다 백배 낫다. **87년생** 사망감이 발전을 지켜주는 힘인 듯.
- 40년생** 협동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시작. **64년생** 돌 중 하나는 양보해야. **76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88년생** 농부가 밭을 두려워하면 빛나는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 41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신중을. **5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5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77년생** 검은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9년생** 하루도 술 안 먹고 집에 들어가는 법이 없는데 어쩌라.
- 42년생** 상대가 나를 높여 준다. **54년생** 기회가 오니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때. **66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도 어렵다. **78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90년생** 해로움에서 은혜가 생기며 은혜를 해로움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다.
- 43년생** 뒤늦게 기회가 왔으니 힘껏 노력. **55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7년생** 위기를 기회로 잘 이용 할 수 있다. **7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식 사랑뿐. **91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하니 기다려라.
- 44년생** 명예는 높아지나 실속은 그다지 없다. **56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 본이라 했다. **68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따를 것. **80년생** 부모님의 오랜 적성이 내게로 돌아온다. **92년생** 초년고생은 돈을 쥐어도 못산다는 속담.
- 45년생** 오늘은 발로 뛰는 일을 찾아라. **57년생** 명상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자. **69년생** 바람이 불어도 정당한 기분은 흔들리지 마라. **81년생**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결국에 내 흥도 드러난다. **93년생** 대부분 인생사 고락이 유전하는 것.
- 46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58년생** 언젠가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0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82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나를 보는 듯. **94년생**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책도 읽어 폭넓은 상식도 키워라.
- 47년생** 새롭게 시야를 넓혀보라. **59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71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게. **83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이다. **95년생** 뉘든 즐기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창조적인 것을 찾도록.



김상회의 四季 하늘의 뜻에도 법칙이

장자(莊子)가 말하길 하늘이 생물을 만들 때 이빨이 있으면 뿔을 주지 않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를 두 개만 갖게 하였다 했다. 명리에서 하늘의 뜻이 공평함을 역설하기 위해 내 놓은 근거가 상보(相補)의 법칙이다. 이는 현상전이(現狀轉移)를 설명하는 물상(物象)의 대체(代替)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가령 지위가 높으면 자식이 없고 자식이 많으면 지위가 낮다는 식의 발상이다. 또는 배가 부르면 수명이 단축되고 검약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견해와 같다.

이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옳다는 수분수의(守分隨義)의 교훈이 담겨있다. 청대의 기호암(紀昀)이 지은 열미초당필기(閱薇草堂筆記)에는 무수한 실화들이 담겨있는데 주로 동일한 사주의 삶을 비교한 예들이 많다.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주인집 자손과 하인의 자손은 성장기에 같은 복록을 누리지 못해 하나는 일찍 죽고 하나는 오래도록 목숨을 부지했다는 사례를 들어 상보의 법을 논한다. 또 같은 사주로 높은 지위를 누린 경우에는 말년이 처참하기도하고 비교적 낮은 복록을 구가하는 이는 말년이 평안했다는 식의 얘기로 전해진다. 따져보면 왕이나 각국의 재벌가도 비운의 역사를 지니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이를 살펴보면 같은 상보의 법칙이 아주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세상에는 온갖 복록을 장구히 누리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시련에 드는 자가 존재하게 되니 현생의 인과뿐 아니라 전생(前生)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장되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다. 그러나 깨우침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발전이 지혜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니 명리(命理)는 가장 분명하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법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쉼 없이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6		2	4		5
4			8			7
	8				3	
8		1				6
2						5
	4				1	
3			6			4
	8		7	5		9

9			3		1			8
				6				
			9		8			
6	9		3		7		5	
	7		1	5	9		6	
8	3		7		9		1	
			5	3				
			8					
3			2	6				7

정답

과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94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04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